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전체 설계사의 41.5%, 교차모집 설계사 등록

□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FY08 상반기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현황 및 효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규모는 증대된 반면, 보험계약 유지율 및 설계사 정착률 등의 효율은 FY07과 유사한 수준이라 전함.

- o FY08 2/4분기 전속 보험설계사 수는 22만 7천명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5.4% 증가하였으며, 대리점 수도 5.2% 상승한 5만 6천 2백개를 기록함.
- o 보험설계사 13월차 정착률에 있어서는 FY04(35.4)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, FY08 상반기에는 FY07(42.0)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음.

□ FY08 상반기 전체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원으로 FY07과 동일하며, 월평균 모집액은 2,308만원으로 FY07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.

- o 한편, 손보사는 장기손해보험 판매 안정화로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을 초과함.

□ 교차모집 제도 시행(‘08.8.30) 이후 교차모집 설계사는 11월말 기준으로 총 9만 4천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설계사 수의 41.5%를 차지하고 있음.

- o 손보 설계사가 생보 교차모집 설계사로 등록한 수는 2만 5천명(손보 설계사의 33.9%)이며, 생보 설계사가 손보 교차모집 설계사로 등록한 수는 6만 9천명(생보 설계사의 45.1%)인 것으로 나타남.
- o '08.9~11월 중 교차모집 설계사에 의한 판매 실적에 있어서는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생보사가 50억원, 손보사가 417억원을 기록함.

□ 이에 금융감독원은 교차모집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집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, 판매채널의 효율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함.

(FY08 상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현황 및 효율 분석-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, 12/12)